

KEDI 미국은행TOP10 지수 산출방법 (Methodology Book)

Nov 2024

1. 지수 소개

- A. 본 문서는 **KEDI 미국은행TOP10 지수**(KEDI U.S. Bank TOP10 Index)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B. KEDI 미국은행TOP10 지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10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 C. KEDI 미국은행TOP10 지수는 가격지수(Price Return)입니다.

구분	기준시점	기준지수	발표일	산출시간	리밸런싱주기
일반전략지수	2019.01.04	1,000pt	2024.11.15.	8:30AM (KST)	분기

2. 지수 구성 방법

A. 기초 투자 유니버스 선정

KEDI 미국은행TOP10 지수의 유니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합니다.

- 미국 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된 보통주
- 정기변경일 기준 유동 시가총액 \$1Bn 이상인 기업
- 정기변경일 기준 3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이 \$1Mn 이상인 기업
- 본사의 위치가 미국인 기업
- KEDI-Akros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KAICS) Primary Level 5 분류 기준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Commercial Banking
 - Investment Banking and Securities Intermediation

* KEDI Akros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KAICS)는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Akros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AICS)를 기반으로,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된 분류 체계입니다. AICS는 미국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산업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개요와 매출구성을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종목별로 구분한 업종 분류입니다

B. 편입 종목 선정

기초 유니버스에 선정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편입합니다.

C.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산정 방식

시가총액 가중 비중으로 결정하되, 개별 종목 최대 비중은 20%로 제한합니다. 특정 종목의 20% 초과 비중은 나머지 종목에 재분배됩니다.

3. 지수 산출 방법

지수값의 산출

본 지수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시가총액을 가중한 지수입니다. 지수 산출 기준일은 2019년 01월 04일이며, 기준지수는 1,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I(t = 0) = 1000$$

$$I(t) = \frac{\sum_i P_{i,t} \times Q_{i,t}}{\sum_i P_{i,t-1} \times Q_{i,t-1}} \times I(t - 1)$$

t	특정 시점 t
I(t=0):	지수 I의 기준 값 (1000)
I(t):	t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
I(t-1):	t-1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
P _{i,t} :	t 시점 종목 i의 종가
Q _{i,t} :	t 시점 종목 i의 보유량

세부내용

위 수식을 이용하여 t 시점에 대한 지수 I의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 I의 값에 대한 산출은 장 종료 시점(t-1)과 다음 영업일 개장 시점(t) 사이에 발생하는 종목의 시장가치 변화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수식은 주식 분할 등 시장 중립적인 이벤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지수 관리 및 유지

A. 정기변경 (분기별)

- 모든 영업일은 미국 주식시장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중결정일 (Determination Date): 3,6,9,12월의 마지막 영업일 D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며, 지수의 비중을 확정합니다.
- 수행일 (Implementation Date): D+3 영업일 장 종료 시점에 정기 변경을 수행합니다.

B. 수시변경

합병/분할, 상장폐지 등 특정 기업 이벤트 발생에 대한 수시변경은 일반적으로 「기업 이벤트 적용 방법론」을 따릅니다. 영업 손실 등 운용 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KEDI 지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시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 문서를 포함한 KEDI(한국경제신문지수)의 지수 콘텐츠는 (주)한국경제신문과 서면동의 없이 복제,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KEDI의 지수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산출 및 공표와 관련한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한국경제신문은 KEDI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제 3 자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지수 이용자와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투자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